신현묵(소프트웨어 개발자) 1차 구술

1. **구술자**: 신현묵
2. **면담자**: 강희영
3. **촬영자**: 이대희
4. **구술일자**: 2012년 3월 27일
5. **구술장소**: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대회의실
6. **구술분량**: 01분 41초 / 일부 공개
7. **주요내용**: 2000년 16대 총선 낙선과 '정치를 하는 이유'

구술자 : 정치, 아 지금도 기억나는 게 '정치가 도대체 뭐예요?'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고 말은 기억이 나요.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, 법은 너무 느리다. 사람들을 그 뭐라 그럴까, 하지 말아야 될 것, 해야 될 것. 법이라는 것이 모든 거를 (규정하는데) 법은 또 천천히 변한다.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느리게 변하는 법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될 수 있게…. 내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. 법은 너무 느리다. 술 한 잔 거하게 하시면서 정치란 뭡니까, 라고 얘기하셨을 때 좀 더 그럴듯하게 설명하셨는데, 하여튼 뜻은 그러셨어요. '법은 너무 느리고 그 법이 느린 것을,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법이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데 그 갭(gap)을 메꾸기 위해서 정치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라는 것이 존재한다. 그래서 난 정치를 한다.' 그랬던 기억이 나요.

정치란, 제가 그때 아마 유일무이하게 정치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였어요. 부산선거 떨어지고 올라오셔서 사적인 자리에서, 딱 한분만 더 계셨거든요. 그런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시고 그래서 '아, 정치라는 게 그런 거구나. 법으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.' 좀 뭐라 그래야지,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넓혔죠.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. 또 가끔 고런 유사한 걸 누가 물어 보면은 제가 인용해서, 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인용을 해서 (설명하죠). 왜냐면 그때 그 얘길 들은 사람이 저하고 딱 한분 밖에 더 없으니까.

■ 구술자 주요이력

1972. 인천 출생

1990년대 이래 온라인게임 개발, 제약·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정보시스템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해 옴.

1996년 하반기 ‘뉴리더’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래 ‘우리들’ 소프트웨어 개발과 ‘노하우2000’ 초기 버전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. 1997년 3월 16일 결혼식에 노 대통령이 주례를 서기도 했다. 그 같은 인연이 2010년 5월 주간지 ‘한겨레21’ 811호에 소개된 바 있다.